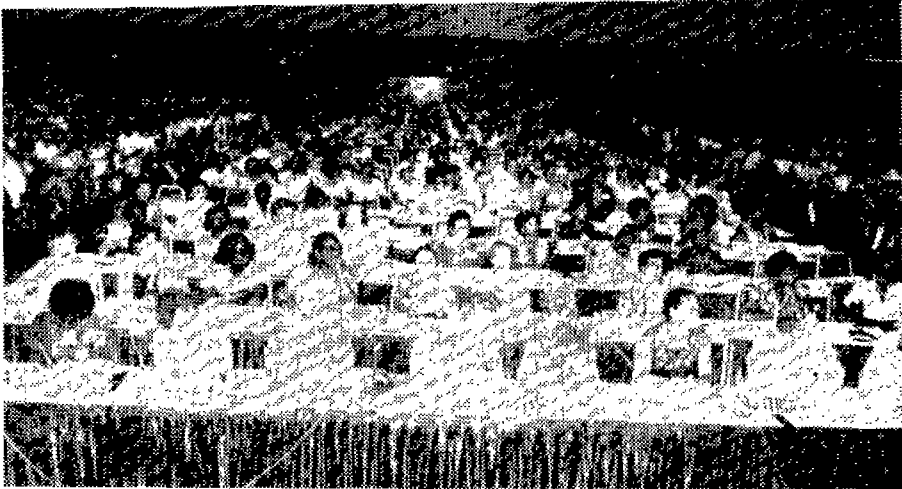


제17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

회 장 김 모 임
—대표보고 사무총장 조 인 자

국제간호협의회 제17차 총회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 Los Angeles의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1949년 ICN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이 사적으로 선출되어 서태평양 지역 12나라의 간호사업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학술프로그램



<총회 광경>

중 한 분과 토의를 맡아 운영하고 80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6일간의 회의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6월 28일~30일의 대표자 회의와 7월 1일~3일의 학술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6월 28일 오후 7시 미 해군간호병과의 Richard Gierman



(Olive Anstey회장)

총령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각국의 일만여 참석자들이 꼭 매운 회의장에 제일 먼저 초청인사 및 간호사업전문위원회(PSC)위원을 비롯한 간호계 지도자들이 입장하고 고유의를 입은 각국 대표의 입장은 주최국인 미국간호협회 대표의 입장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각국 대표의 뒤를 이어 Anstey 회장과 임원들이 차례로 입장하였다.

Olive Anstey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총회의 주제인 'Health Care for All'은 미래 간호의 목표를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곳 누구에게나 양질의 간호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Barbara Nichols 미국간협회장)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간호가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와 모든국가의 건강관리에서 일어날 변화와 불확실성에 비추어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간호전문직은 오늘과 내일의 도전에 응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주최국인 미국의 Babara Nichols 간호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류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간호원들이 인류의 생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간호역사의 일부를 이루게 될 중요한 회의에 세계 간호원 대표들을 미국에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미국간호협회의 총회 준비위원회 D. Conelius의 인사와 로스앤젤레스 T. Bradley 시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개회식의 마지막은 신입 회원국 환영 순서로 절정을 이루었다. 2년전 가입이 결정된 Cypres와 1980년 7월 CNR이 서면으로 가입을 인준한 Hungary, Guatemala, Seychelles, Tonga의 네 나라와 6월 28일 오전 개회식전 비공개로 열린 CNR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된 Cuba, Lesotho, Malawi 등 8개국이 신입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들 나라를 ICN에 가입 추천한 나라의 회장이 추천 연설을 통하여 각 나라의 간호협회를 소개하고 신입 회원국의 대표들이 자기 자기 나라의 특징과 간호협회의 연혁을 보고하였다.

Anstey 회장은 신입 회원국 대표들에게 ICN 가입을 축하하는 붉은 장미꽃 한송이를 전달하고 환영의 포용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우리와 같은 환영의 박수를 받음으로서 ICN회원국이 되었음을 확실히 하였다.

이로서 ICN의 회원국은 모두 95개국이 되어 72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여성단체협의회보다 23개 국이나 더 많은 국제 기구로 성장하였다.

대표자 회의의 중요보고, 토의 및 결의사항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보 고

1. Anstey 회장 보고

Olive Anstey회장은 1979년 9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CNR회의때 보고된 이후의 이사회 활동을 중점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① 간호원과 간호의 사회·경제복지 및 지위향상 ② 일차건강관리개발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개발 목표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ICN에서 일하면서, 경제·정책계획의 세계적 추세와 이것이 건강관리와 간호·간호원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간호원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서 보다 나은 세계 건설을 위해 간호원이 주요 인물로써 정책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2. Holleran 사무총장 보고

Constance Holleran 사무총장은 1977년 부터 81년까지의 ICN사업에 대해 몇가지 중점 사



업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다. 또한 4년동안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미비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을 밝혀 차기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Constance Holleran사무총장) 다. 각 사업에 대해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 사업수행활동, 시간 및 평가방법 등을 자세히 밝히므로써 ICN의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ICN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른 사업시행결과를 보고하였다.

3. 간호전문 위원회 보고

1979년 10월부터 1981년 6월까지 2년동안

- ① ICN의 policy statement
- ② 간호연구에 있어서의 ICN의 역할과 책임
- ③ 건강에 관계되는 상품이나 제약회사의 선전
- ④ 새로운 종류의 보건인력 문제
- ⑤ ICN 출판 --2000년대의 간호
- ⑥ 간호교육과정 개발원칙
- ⑦ 생명의 기계적 유지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지침
- ⑧ 연구에 있어 인권보호문제
- ⑨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및 간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몇가지는 계속사업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간호전문위원회에서 트의·협의원 내용들이 각국 간호협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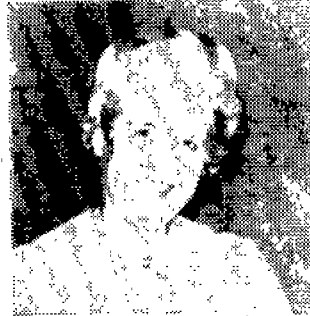
4. 출판 홍보사업

- ①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년 6회 발간 (p. 32),
색인 발간 년 1회
- ② 간행물--New Horizons for Nursing,
Socio-Economic welfare for Nurses,
Socio-Economic welfare for Nurses in
Europe,
- ③ 국제간호원의 날 주제 선정
1980년 : 일차건강관리에 있어서의 간호의 역할
1981년 : 세계 심신장애자의 해에 관련하여
- ④ 홍보사업
News Release 발간--각국 간호협회 소식
지재

5. 사회경제복지사업 보고

이번 회의에서 ICN의 사회경제복지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1983년까지 ICN

의 최고우선순위사업으로 하자는 데 찬성했다. 또한 1977년 이후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1983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CNR회의의 우선순위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회경제복지특별위원회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Sheila Quinn의장)

사회경제복지특별위원회의장인 Sheila Quinn은 본위원회가 회원국 협회의 요청에 따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커다란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CNR에서 발표하였다.

B. 토의안건

1. ICN 정관개정

2. 여성할례

ICN은 여성할례로 알려진 행위에 대한 WHO/UNICEF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러한 관습의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 것이며 보자보건사업과 보건교육사업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특히 이의 해로운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가능한 대로 여성할례금지법령 제정 및 관계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고 추적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WHO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3. 간호와 정신건강

건강의 개념에는 정신건강영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으로 인해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과 보건의료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원은 정신건강에 관련된 요인, 문제를 접할 기회 및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에 간호원이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ICN은 "ICN Guidelines on desirable curriculum content

of mental health for basic nursing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국 간호협회로 하여금 정신건강간호교육을 장려토록 하고, 이 분야의 specialist를 양성하고 기존간호원에게 보수교육을 시키고, 정신건강증진에 있어 간호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4. 죄수·구류자 간호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ICN의 성명서

베라는 간호협회는 환자들이 침상에서 살해되는 사고가 종종 있다고 말하면서 환자와 업무수행 중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였으며 캐나다 간호협회가 이를 동의하였다. 캐나다간호협회는 간호원, 그 밖의 건강요원들이 폭력의 희생물이 된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과 관련된 조치로서 죄수의 간호행위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간호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를 ICN이 마련해야 한다고 CNR이 지적한 바, 구류자와 죄수의 간호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ICN성명서(1975년 CNR회의)를 기초로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5. ICN 총회

① 지역총회

1979년 케냐 CNR에서 제의되어 1980년 3월



(ICN지역이사 당선후 단상에 자리한 김모임회장)

정관심의위원회에 회부되다. 정관위원회는 ICN의 인력 및 재정이 지역총회를 지원하기 불가능하며 4년차 총회와 2년마다 CNR을 개최하는 이상 지역총회까지 주관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총회를 할 경우 INR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역총회의 개최는 지역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② 총회규모

1979년 CNR에서 논의한 할당제에 의해 총회 참석자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세번 총회의 각국 회원수대 참석자수, 개최국 참석회원수대 외국 참석회원수, 1980년 10월 현재의 ICN회원수대 각국 회원수, 지역별 회원수, 지역별 총회 참석자의 비율 등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제의대로 개최국에 일임하되 외국 회원의 참석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6. 회원증가를 위한 방안

각국 간호협회의 활동은 그 나라 간호협회의 회원수,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단결된 힘에 좌우되므로 회원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활동이 필요하며 실제적으로 회원의 증진을 모으는 일, 신입회원의 증가, 매체물 통한 협회 활동 홍보, 전문직업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 마련, 회원의 사회경제적인 복지향상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ICN은 각국 간호협회의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문하거나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7. 세계 장애자의 해

오늘날 전세계 5억이상의 인구가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심리적 혹은 사회기능적 불구자임을 생각하여 이들의 건강교육, 예방사업, 봉사활동, 장애인나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불구예방에 기여하는 건강팀 중 주요인력은 간호원이며 간호관리와 재활업무를 기선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있음을 밝히고 따라서 ICN은 UN의 1981년도 세계장애자의 해 선언과 그 목표를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 세계재활(R.I.)

에서 채택한 '1980년대를 위한 선언서'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자의 통합을 위한 모든 사업계획을 지지할 것과 장애자를 위한 기술, 연구 및 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타 국제유관 단체와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8. 간호연구

간호연구없이 간호학이 전문직업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므로 이에 있어 ICN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명서를 CNR에서 채택했다.

즉, ICN의 주요역할은 연구증진, 지침서마련, 지역적 간호세미나 참여, ICN총회와 타활동종의 학술프로그램조직 등의 촉진작용 및 간호와 기타 관련연구활동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해 각종 조직과 국제기구와의 협동으로 채택되었다.

9.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새로운 범주의 보건의료인력을 탄생시키고 있는 바, 서

로운 종류의 건강요원의 탄생은 전체 보건의료인력개발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인력들의 취업구조 및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ICN은 밝혔다. 또한 이들 새로운 인력이 탄생되므로써 파생될 수 있는 결과를 인력양성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범주의 인력의 탄생은 시간, 경제, 질적인 면에서 "Health for all"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10. ICN 이사 선출

ICN에는 세계를 7개의 지역(아프리카, 동부지중해, 유럽, 북미, 중남미,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선출된 1명씩의 이사(7명)와 무임소이사(4명)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의 선출은 4년차 총회연도에 개최되는 CNR정기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6월 30일 오전에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단 및 이사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Eunice Muringo Kiereini** (케냐 보건성 간호업무담당관)
- 제 1 부회장: **Sheila Quinn** (영국 Wessex지역 간호담당관)
- 제 2 부회장: **Rebecca Bergman**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간호학교수)
- 제 3 부회장: **Eileen Jacobi** (미국 텍사스대학 간호대학장)
- 무임소이사: **Syringa Marshall-Burnett** (자마이카 West Indies대학 강사)
- Joyce Motley** (뉴질랜드 웰링턴 간호업무보좌관)
- Barbara Nichols** (미국 간호협회회장)
- Kirsten Stallknecht** (덴마크 간호협회회장)



◀신임 E.M. Kiereini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Olive Anstey 前회장



(김모임회장의 당선 축하하는 회원국 대표들)

(지역이사)

- 아프리카 : Serara Kupe (보츠와나대학 강사)
- 동지중해 : Cheheezade Ghazi (이집트 보건성 시청각센터 자문관)
- 유럽 : Marie-Louise Badouaille (파리 병원인력계속교육협회 교육담당자문관)
- 북미 : Helen K. Mussallem (캐나다 간호협회 사무총장, WHO자문관)
- 중남미 : Nelly Garzon (콜롬비아 고등교육개발원 부원장)
- 동남아시아 : Harriet Chabook (인도 간호협회 회장)
- 서태평양 : 김모임 (대한간호협회 회장)

서태평양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일이사국이었던 필리핀, 일본, 서사모아, 피지 등 5명의 입후보자가 가장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으며 본회 김모임회장이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지역 국가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지역이사직 당선되었다.

11. 기 타

- ① 회전자금 5,000불 기증
6월 29일 제 2일 본회의에서 한국의 김모임회장은 ICN에 지개발 회원국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회전자금에 본회 회원이 300원씩 1981년도 말까지 모금하여 모아지는 5,000불의 기금을 기증하는 연설을 통해 국제간호사회 속에서의 한국간호가 주는 자의 입장을 보여준으로써 서개발국, 비동맹국가 등과 전문 영역을 통한 국가의 교류를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② 3M 장학제도 확장
전세계 간호원에게 전문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건강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1969년에 설립된 3M 장학제도를 확장하여 1982년도 부터 3명의 장학생을 선발키로 하고 장학금액을 6,000불에서 7,500불로 증액시켰다.

CNR은 이상의 중요안건들을 처리하고 1983년 CNR회의는 브라질의 Brasilia, 1985년도 ICN총회는 이스라엘의 Tel-Aviv에서 개최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월 3일 오후 5시 폐회하였다.



<프로그램>

7월 1일 본회의 : 주제-2000년대를 향한 간호

- 분과토의 : 토의 1 : 주제-2000년대의 간호영역
- 토의 2 : 주제-간호학습의 혁신
- 토의 3 : 주제-간호수행의 새로운 접근법
- 토의 4 : 주제-간호관리의 새로운 접근법

7월 2일 본회의 : 주제-미래 건강관리개발에 있어 동반자로서의 간호원

- 분과토의 : 토의 1 : 주제-일차건강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동반자
- 토의 2 : 주제-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동반자
- 토의 3 : 주제-미래를 위한 간호교육 (한국이 주관함)
- 토의 4 : 주제-대중 (환자와 내원자)의 동반자

7월 3일 본과토의 : 토의 1 : 주제-간호과정

- 토의 2 : 주제-간호기준
- 토의 3 : 주제-간호수행과 윤리
- 토의 4 : 주제-사회경제복지

본회의 : 주제-미래의 행동

<주제강연> “2,000년대를 향한 간호”
“2000년대를 향한 간호”(Nursing for a New Century)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발표한 Dr. Alice J. Baumgart는 제17차 ICN총회의 쟁점을 ① 일차건강관리 : 간호원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분야 ②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과 정치참여의 권장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집약하면서 미래의 간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간호의 쟁점과 범위에 혁신이 있을 것이다. 간호는 일차건강관리의 역할에 쟁점을 드을 것이며 따라서 일차건강관리사업에서 최초로 대상자와 접하는 모든 역할

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혁신은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아방어의식만을 가지고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둘째, 간호원에게 새로운 의식이 솟아날 것이다. human & woman liberation운동에 영향을 입어 현재의 직업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지위를 찾는 새로운 직업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보다는 집약적으로 힘을 모으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간호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강연이 끝난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속되었던 학술대회는 두가지 session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즉, plenary session과 concurrent session이다. concurrent session은 한 패널토의를 한 국가가 담당하여 운영하기도 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대표가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도 한 패널토의를 맡게 되어 Hilton Hotel의 Assembly East Hall에서 7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한 것이었다.



(아프리카의 간호계 동료들과 함께)

〈한국주최 패널토의〉

“미래를 위한 간호교육”

먼저 김모임회장의 개회인사 및 이 패널토의의 의의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뒤이어 사회

자인 이대간호대학 하영수학장이 미래의 간호교육에 대해 일반적인 전망을 얘기하고 panelist를 소개하였다. 패널리스트인 홍여신박사는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김수지박사는 “미래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준비”, 김의숙박사는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를 위한 간호교육”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ICN에 참석한 한국대표간호원들을 비롯하여 제미간호원, 세계각국에서 모인 여러나라 간호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바, 한국간호학의 위치가 세계수준임을 과시하였으며 발표가 끝난후 약 40분간 열띤 질의응답과 제안 등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 간호원이 한국의 간호 발전에 대한 경의 및 축하와 함께 450명의 일본 대표단이 뚜렷한 성과 하나 없는데 미해 한국이 이룩한 알찬 성과에 대한 전망과 찬양의 발언이 있어 감명을 받았다. 영어로 발표된 패널토의의 원문내용과 국문요약을 다음에 그대로 게재한다.

한국대표들은 자기 자기가 원하는 session에 참석하며 자료를 모으고 틈틈이 병원 시찰단에 참석하는 등 분주하게 활동하였다.

〈분야별 심포지움〉

학술프로그램중 ICN의 중요사건에 관련된 분야별 심포지움이 열려 한국에서는

“1차 건강관리” 심포지움에 전산초박사, 정문숙교수, 한윤복교수, 전영자교수가,

“경제사회복지” 심포지움에는 하영수박사가 각각 참석하였으며 뒤에 전산초박사와 하영수박사의 참석기를 실는다.

제17차 ICN총회 학술대회를 최종적으로 요약한 Dr. Margretta M. Styles의 논평에 의하면 “ICN의 금년도 주제는 이 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다. 한 다 더르 말해 Health care for All은 Health Care for Nursing에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일차보건의료의 막중한 책임은 우리 간호원에게 있다는 것을 극시한번 천명하였다.

기타활동

1. 한국전시관

1981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막된 전시관 #705에 한국전시관을 설치하고 7월 2일까지의 전시기간동안 본회 출판간호학도서, 정기간행물, 한국문화물 소개하는 민속공예품 등을 전시하였으며 52개 교육기관의 배지와 배달을 KOREA 로 디자인한 전시품은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성황을 이룬 한국전시관)

현지 영사관 및 국제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각국 대표에게 한국홍보 책자와 본회 홍보용 리프렛을 배부하여 1987년도 CNR회의나 1989년도 ICN 제19차 총회를 유치하는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2. 사진전 참가

총회기간 동안 전시된 사진전에 본회 문중수회원의 작품 2점을 전시하였다.

3. 각국 단체가 주최한 리셉션 참석

American Medical International 주최 리셉션, 미국간호협회 주최 오찬, 미국간호관계단체 초청 만찬 및 미 3군 간호장교단, 적십자, 연방정부 간호사업책임자 주최 리셉션, 일본간호협회 주최 리셉션, 케냐간호협회 주최 리셉션 등에 참석하여 각국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L.A 박민수 총영사가 한국대표단을 위하여 주최한 리셉션)

돋독히 하였다.

이외에도 L.A. 박민수 총영사가 주최한 초청 만찬이 영사관저에서 7월 2일 저녁 7시에 열려 한국대표 80명, 재미회원 30명 등이 참석하였는데, 오랫동안 한 자리에 모인 간호계 선구배들은 이국에서의 밤을 흥겹고 또한 감격스럽게 보냈다.

4. 홍보활동

한국일보 T.V.인터뷰 및 미주판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김도임회장 인터뷰기사, ICN총회기사 등이 게재되었으며, ICN Congress News 확보에는 Anstey ICN회장과 김도임 본회회장 사진이 실렸고 또한 지역이사 당선소식도 기사화되었다.

5. ICN 정기이사회 참석

김도임회장은 이사의 자격으로써 ICN총회후 처음 모인 7월 5일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3M위원으로 피선되었다.

폐회식

7월 3일 오후 7시 30분 Convention Center

Hall B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새로 선출된 Kiereini회장의 신임인사가 있었으며 Anstey회장은 새로 선출된 임원을 한사람씩 소개하고 당선을 축하하는 붉은 장미꽃 한송이씩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김고임 회장도 서태평양지역이사로 단상임원석에 자리잡았는데, 김 회장이 소개되었을 때 한국대표들은 박찬 감격의 박수로 열렬히 환영을 하였다.

역사적인 제17차 국제간호협의회 총회를 끝내면서 우리 대표단의 한결같은 열원은 1987년도 CNR회의나 1989년도 ICN총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세계속의 한국간호를 두각시킬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ICN 차기회장도 한국에서 나와 세계 모든 간호원의 충실하고 유능한 leader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

(73페이지에서)

간호학회지, 7, 1(6) 1977
 열경선 : 실무교육에 대한 간호원의 학습요구
 간호학회지 6, 2(12) 1976
 이영복 : 전문직과 윤리(간호학적 견지)
 이회창립 9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움 보고서
 1976
 박상연 : 간호학생의 입학동기 및 재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3, 2(8) 1977
 홍춘실 외 : 간호직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비도 조사
 충남의대 잡지 3, 2(12) 1976
 한윤복 : 간호교육과 윤리
 이회창립 9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보고서
 1976
 박정호 : 간호업무와 윤리
 이회창립 9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보고서
 1976
 병원간호행정 세미나 보고서 : 대한간호협회, 1980
 제2회 경희간호교육 심포지움 : 현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간호교육과 그 과제. 1969

Lulu W. Hassenplug; 2001 IS HERE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New York 10019.
 Suzanne Diffley Holloran, Barbara Hyduk Mishkin and Rirdie L. Hanson; Bicultural Training for New Graduates JONA Feb. 1980
 Barbara Hollefreund, Virginia Mlack Mooney, Shirley Moore and Joan Jersan; Implementinga Reality Shock Program JONA Jan. 1981
 Jo Ann Johnson; The Education/Service Split: Who Loses? - Nursing Outlook. July 1980
 Marjorie J. Powers; The Unification Model in Nursing - Nursing Outlook Aug. 1976, Vol. 24, No. 8
 Margaret D. Sovie; Unifying Education and Practice One Medical Center's Design Part I JONA. Jan. 1981.
 Margaret D. Sovie; Unifying Education and Practice One Medical Center's Design Part II JONA Feb. 1981